

월요광장

면양정의 가마꾼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무등산 한 자락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 되었거늘 / 끝없이 넓은 벌판에 무슨 생각 하느라고 / 일곱 굵이 한 곳에 움츠러 무더기 무더기 벌여 놓은 듯”

천고에 유명한 '면양정가'의 첫 들머리 대목이다. 가사문학이라면 흔히 송강 정철을 꼽지만 송강의 스승은 바로 면양정 송순(宋純 : 1493~1583)이다. 그래서 송순의 '면양정가'를 읊어 보면 자연스럽게 송강의 가사는 스승의 작품 면양정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여기게 된다. 제자가 스승에게서 배우고 본받는 것이야 너무도 당연한 일, 조선 시대의 가사문학의 원조는 역시 호남 출신 송순임을 알게 되고, 그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은 조선의 가사문학이 그렇게 격조 높았음을 알게 해 준다.

원효계곡의 사립문화와 가사문학의 좌장은 역시 송순이었다. 송순은 담양 출신으로 호는 면양정 또는 기촌(企村)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개성유수·이조참판·대사헌·우참찬 등의 고관을 지내 나라 안에 이름이 가득하였다. 글 잘하고 가사문학에 뛰어나 수많은 제자들이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김인후·노진·박순·기대승·고경명·정철·임제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문인들이라면 스승의 학덕을 짐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1533년 김안로가 권세를 부리자 깨끗한 선비이자 벼슬아치이던 송순은 벼슬을 버렸다. 그리고 고향인 담양으로 낙향하여 '면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시와 가사를 읊고 가야금을 타며 풍류를 즐겼다. 김안로가 시약을 받고 죽자, 벼슬같이 열린 송순은 흥문관 부

제학, 충청도 암행어사, 승정원 우부승지, 경상도 관찰사, 사간원 대사간, 전라도 관찰사, 전주부윤, 나주목사 등 은곳 요직의 벼슬을 살았다. 70이 넘어서도 한성판윤 등의 고관에 올라 청백리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면양정! 아름다운 정자로 학문이 있고 시가 있으며 가사와 가야금이 있던 곳이다. 학자 기대승이 '면양정가'를 짓고 임제가 부(賦)를 지었으며, 김인후·임억령·박순·고경명·정철 등이 찬양의 시를 지었다. 이만한 인물들의 시와 글이 있는 정자로서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갑오년(1894) 무렵, 보성에서 귀양살이를 하다 해배 명령으로 귀향하던 한말의 대문호 영재 이근창(1852~1898)은 면양정에 올랐는데 흥을 이기지 못해 뒤 215년째던 정조22년(1798)에 전라도에 도과(道科)를 실시했는데, 글 제목이 '하어면양정'(면양정에서 가마를 매었던 일)이었다. 면양정의 사연은 그렇게 맞았다. 이런 정자의 내력을 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면양정은 정말 국보급의 정자다. 그래서 이근창은 시에서 가마꾼들이 세상에 이름 높았으며, 그런 분들 누가 오늘 자신의 가마를 매어 줄까를 탄탄했던 것이다. 호남의 문화유산, 면양정을 이제라도 더 아름답게 여기고 우려려 보자.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에는 또 긴긴 사연이 있다. 27세에 문과에 급제한 송순은 벼슬에서 물러난 87세 때인 1579년 과거급제 60주년을 맞아 '회방'(回榜)의 잔치를 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인가. 잔치는 천하의 절경인 면양정에서 열렸다. 소식을 들은 임금은 호조에 명하여 선물을 보냈고, 전라도 관찰사와 이웃 고을의 군수·목사·현감·부사·현령 등 100여 명이 모이고 제자와 친지 등 많은 인파가 모인 큰 잔치였다. 87세의 극노인이 정자에서 내려올 때, 제자인 박순·정철·이후백·임제 등 4명 이 가마를 매고 스승을 태우고 내려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송순이 타계한 뒤 215년째던 정조22년(1798)에 전라도에 도과(道科)를 실시했는데, 글 제목이 '하어면양정'(면양정에서 가마를 매었던 일)이었다. 면양정의 사연은 그렇게 맞았다. 이런 정자의 내력을 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면양정은 정말 국보급의 정자다. 그래서 이근창은 시에서 가마꾼들이 세상에 이름 높았으며, 그런 분들 누가 오늘 자신의 가마를 매어 줄까를 탄탄했던 것이다. 호남의 문화유산, 면양정을 이제라도 더 아름답게 여기고 우려려 보자.

기 고

무등산의 가치 재발견



정 장 훈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산정하고 따지기 어려운 것이 자연이다. 자연은 사람에게 무한대의 영감과 행복을 주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인간이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등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한복판에서 동서남북 두루 열린 무문대도의 큰 덕산으로 호남인의 기상을 갖춘 어머니 산이다.

올해는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의 열망으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5주년이 된 해다. 그동안 국립공원으로서의 품격과 위상에 맞도록 개선하는 업무에 총심했다면 앞으로는 국립공원 가치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인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뛰어나게 해당 지역의 향토사학적 고찰과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공원 관리 정책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무등산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1000m 이상의 산정에 위치한 주상절리대를 비롯한 봄꽃과 겨울 상고대, 천년사찰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보기 위해 매년 360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감으로서 다양한

혜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12종의 생명체가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동물들의 충분한 서식 및 이동 공간을 확보한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등산을 사랑하는 광주·화순·담양 주민들의 주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멸종 위기에 처한 25종의 생명체가 무등산에 동지를 틀고 있어 시민, 보호단체,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식지 보호·개선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

아울러 향토사학적 접근을 통한 자료를 발굴해 각종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총장사, 전상의 장군의 충민사를 비롯한 금곡동 도예지와 도예공방, 의재 하백련 선생의 예술세계 등과 폭넓은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체계화시켜 무등산권 문화경관이 주는 감동을 배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무등산을 중심으로 재조명에 별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유서석록을 남긴 정지반·정지유 형제, 전국 각지를 떠돌며 시민의 애환을 노래하다가 무등산 자락에서 숨을 거둔 김

삿갓, 10년간 수학하며 가사문화권을 다진 송강 정철, 그 외에도 많은 위인들이 무등산을 기반으로 문학 활동을 하였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더 많은 시인들이 무등산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분은 '큰 바위의 품을' 등을 쓴 범대순 시인이라고 생각한다.

셀 수 없이 무등산을 오르면서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축는 날까지 자연의 품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자 몸부림친 흔적을 그의 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등산에는 자색의 강이 흐른다는 그의 시어 속에서 해발 1100m 서석대의 수정병풍이 석양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있는 모습도 연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등산 꿈과 이상을 노래한 듯하다.

금년엔 무등산 생태탐방연구원이 준공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무등산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이 잘 보전돼야 민주·평화·인권·안전의 도시인 광주가 친환경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봄 범대순 무등산 시인의 의로움과 파란 대소가 넘실거리는, 생기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거뒀 나가기 소망해본다.

기 고

전남 김, 새로운 한류 스타로



송 원 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

이 이제 한류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109개국에 5억 달러 어치 김을 수출했다. 한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 중 담배, 참치에 이어 3위. 한국 대표 수출 식품이 된 것이다. 2007년에 김 수출액이 6000만 달러였으니 정말 엄청난 성장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밥반찬으로 먹던 김이 이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까닭은 뭘까. 김은 비타민·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해 고혈압·당뇨·동맥경화·암 예방에 좋다. 특유의 맛과 향을 내는 핵산 성분이 들어있어 입맛을 자극한다. 이처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에 해외에서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이 세계로 넓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김에 2024년까지 김 수출을 1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한다. 김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한국 김 수출은 최근 해마다 약 20%씩 증가해 온 만큼 가능한 이야기다. 국내 김 최대 산지인 전남에 좋은 기회다. 전남은 연간 38만톤의 물김을 생산한

다. 전국 생산량의 76%다. 전남이 한국 김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기반도 탄탄하다. 전남도 해양수산과 학원은 2012년 한국 최초로 새로운 김 품종인 '해풍1호'(일명 슈퍼김)를 개발했다. 일반 김에 비해 성장이 2배 빠르고, 수확량도 많다. 김 종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해남에 김 종자산업 연구 센터를 세웠다. 친환경 어구 보급, 김 가공시설 현대화에도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김 양식어장 7000ha를 새로 개발했다. 전남의 탄탄한 김 생산 기반은 오르고 있는 김 가격과 맞물려 큰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 틀림없다.

뭇물 편 배만이 바람이 불 때 달려갈 수 있다. 김이 한류를 타고 있지만 더 탄탄히 준비해야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다. 첫째, 고품질 김을 넉넉히 생산하려면 우량 품종을 꾸준히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예방에 좋은 김 육상재묘시설 및 냉동방 보관시설도 더 보급해야 한다.

둘째, 국내 실정을 잘 살펴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60년 넘게 등급제를 실시해

온 일본에는 100여 등급이 있다.

셋째, 시설 현대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요즘 세계인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찾는다.

넷째, 김 시장을 키우기 위해 김 스낵, 잼, 젤리, 샐러드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해외시장을 파고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 대상산단에 대중국 수산가공식품 수출단지와 국립 김 산업 연구소를 잘 만들어야 한다. 전남 김 산업의 전진기지는 만큼 완공될 때까지 꼼꼼히 살펴야겠다.

1640년(인조 18년) 광양 태인도 바닷가에 떠내려 온 나무에 붙은 바닷풀을 보고 김여익은 직접 키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 바닷풀에 '김'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370여 년이 흐른 지금, 김은 전남의 수출 효자가 되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식품이 되었다. 한류를 탄 전남 김이 세계로 더 쭉쭉 뻗어나가길 바란다.

社 說

기득권 정당 독식하는 선거구 획정 안 된다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쟁기에 나서는 바람에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3~4인 선거구를 늘린 광주시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연구와 공청회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일부 당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광주시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말이 아니라도 3~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 하는 것은 시의회를 기득권 정당이 독식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반영하는 지방자치 실현될 수 없다. 더군다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선거구로 다시 나누자는 수정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부기는 구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선거구에서 반발했고, 광산 5선거구도 시의원들이 2인 선

거구로 축소하려고 하면서 거부 의견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3~4인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결국 본회의를 연기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2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3~4인 선거구를 늘린 광주시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연구와 공청회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일부 당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광주시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말이 아니라도 3~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 하는 것은 시의회를 기득권 정당이 독식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반영하는 지방자치 실현될 수 없다. 더군다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선거구로 다시 나누자는 수정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부기는 구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선거구에서 반발했고, 광산 5선거구도 시의원들이 2인 선

국가사업이 된 광주시 청년 일자리 시책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 드림'이 국가 사업으로 채택됐다.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국정 과제가 된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지역의 시책이 또다시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보고대회에서 광주 청년 드림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시켰다. 청년 드림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함께 지원해 취업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시책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만 19~34세의 청년들에게 매주 25시간씩 4개월간 공공기관과 기업 및 사회 복지 분야 등 6개 유형의 다양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광주시 생

활임금(시간당 8410원)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했다.

사업의 효과는 컸다. 지난해 참여한 청년의 33%가 직무 역량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둬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지원과 소득 지원을 병행하는 청년 드림 같은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주민이 차를 몰고 가다 뜻하지 않게 비비원승이를 치어 죽였다. 주민은 가던 길을 갔고, 사흘 뒤 같은 길로 돌아오는 중에 다른 비비원승이를 마주쳤다. 차를 알아본 비비원승이가 소리를 지르자 인근에 숨어 있던 원승이 무리가 나타나 자동차에 돌세례를 퍼부었다.

앞의 일화는 심리학 박사인 영국 배스대학 명예교수인 스티븐 파인먼의 저서 '복수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는 복수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장류가 지닌 원초적 본능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비비원승이 무리의 습격은 '영장류 공통의 복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라는 것이다.

복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다. 집단 안위를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대응 수단을 넘어 개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에 개봉된 '밀양'은 복수보다 더 힘든 계몽 영화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영화다. 주인공 신애(전도연)는 아들을 범죄로 잃고 교회에 다니며 새 삶을 모색한다. 어느 날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

를 찾아가지만, 살인자는 평안한 얼굴로 신앙에 귀의해 용서받았다고 말한다. 용서를 복수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신애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지난 1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복수의 일념은 부패방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정부 때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그는 작금의 상황을 복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MB의 수사를 보복이 아닌 정의 구현으로 생각한

복수

다. 부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다.

스티븐 파인먼은 "복수를 써잡아 죄악시키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야기까지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나머지 비극적 결말이 예상되는 보복을 감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다. 정신분석가 엘리스 밀러는 무조건적 용서는 "커튼을 쳐서 현실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꿈수'로 위기를 모면해 왔던 MB는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됐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열간 / 부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